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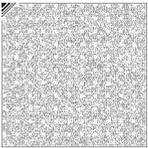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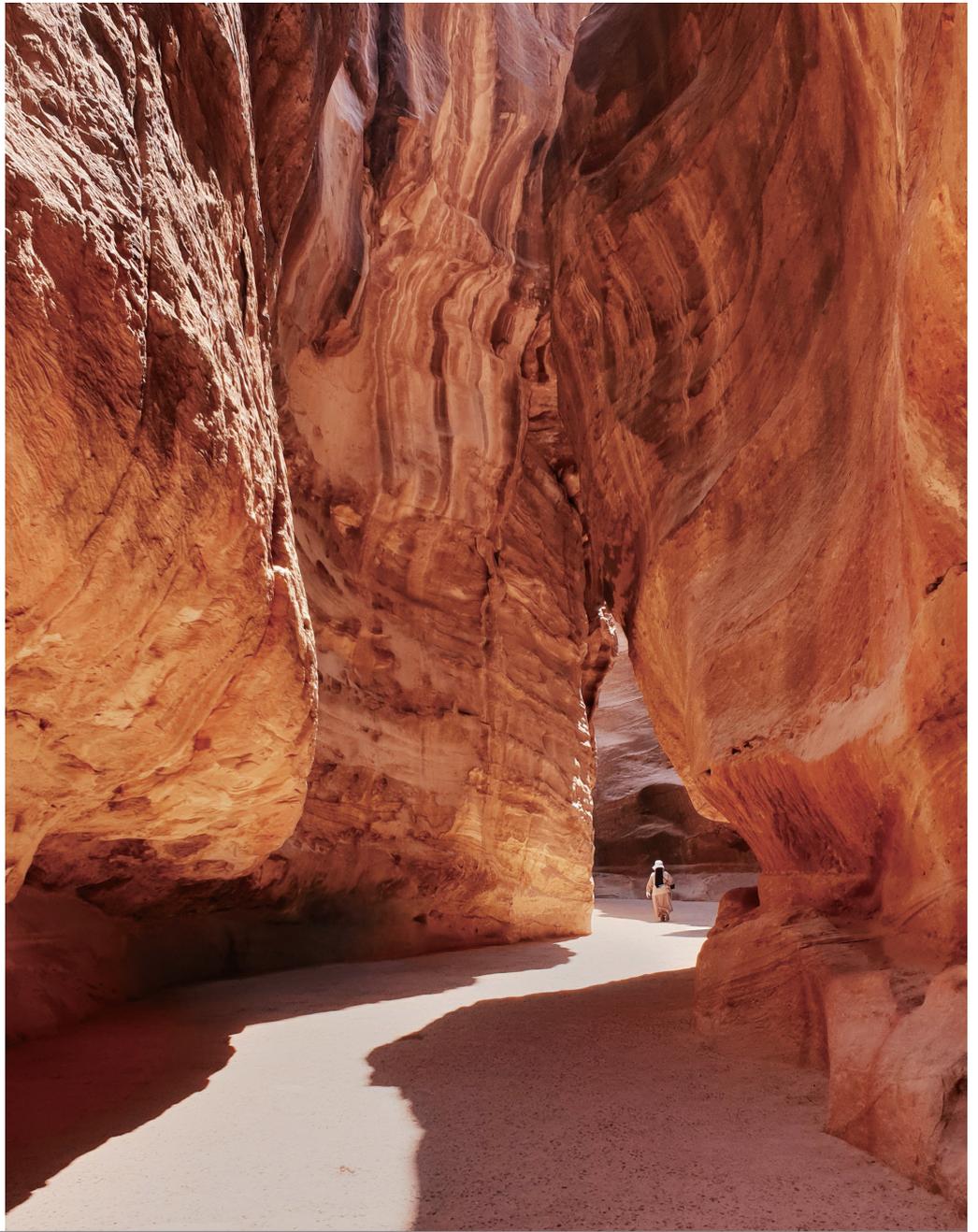
2020년 10월 4일(가해)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
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
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5,1-7

화답송 |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ㄴ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
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
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

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
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
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2독서 | 필리 4,6-9

복음환호송 |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 마태 21,33-43

영성체송 |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이원근 아우구스티노 신부 | 군종

| 군대, 기다림의 은총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물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때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죽을 것 같다는 걱정에 팔다리를 강하게 흔들수록 결국 몸은 물속으로 더욱 깊이 빠지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지만 힘을 빼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여러 걱정으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비록 일상 안에서 오늘 복음의 포도밭 주인을 대하는 소작인들처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밭짐 내라 한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많지만,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우울한 시기(대림, 사순)’가 있고, 그 이후에 ‘기쁨(성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성숙해 나갑니다. 특히 군대 안에서 사회의 첫걸음을 떼는 군인들에게서도 이러한 성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한된 삶 속에서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헤맸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주교구장이신 조구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도 군대에서 겪었던 불안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흙수저’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3킬로미터 거리의 초등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가난이 오늘의 건강한 나를 있게 해 준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 감옥 같았던 군대 생활은 저를 인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기다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군대에서의 힘든 훈련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한계 짓던 체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오래된 대답』 82쪽)

처음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없듯이 군대에 처음부터 잘 적응하기 어렵고, 적응을 해도 국방부 시계는 너무 느려서 인내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변화해가는 모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군종교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군인주일이기도 이미 그 행복은 많은 열매를 맺었고,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의 7만여 명 후원자의 도움으로 지금도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의젓한 신앙인이 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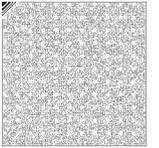
페트라, 요르단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 4, 6-9)

붉은 바위와 협곡만 있고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없는 페트라 협곡에서 끝없이 목주를 돌리며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임선혜 아녜스 | 성악가

| 목주와 어머니

저의 목주기도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쁜 동생이 둘이나 있어 어머니를 독차지하기가 쉽지 않아서였는지, 어머니가 초에 불을 붙이고 목주를 꺼내 그 십자가 끝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그으시면 조용히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느새 어머니 무릎에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고 말았지만, 기도 시늉이라도 하는 저를 기특해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동생들에게도 각자의 목주가 쥐어졌고, 저희는 기도 후 촛불을 끄는 재미에 30분은 족히 걸리는 어머니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을 한 명씩 선창하다 누가 틀리거나, 졸아서 그 순서를 놓치기라도 하면 ㅋㅋ 웃기도 했습니다. 몸을 배배 꼬고 연신 하품을 하기도 했지만, 그 덕에 막내는 아직 잘 안 돌아가는 혀로 주모경을 줄줄 읊었고, 저희 삼 남매는 첫영성체를 준비할 때도 새로 외울 기도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풍경은 차츰 사라졌지만, 저희는 각자 교복이나 옷 주머니에 목주를 넣고 다니면서 등하갯길에 목주알을 굴렸습니다.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날엔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았고, 환희나 영광의 신비를 바치는 날이면 왠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나중에 추가된 ‘빛의 신비’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추억이 없어서인지 그 순서도 곧잘 헛갈렸고 오래도록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독일어로 된 목주기도 책에서, ‘지금 네 삶 어디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머니 마리아는 안다라는 구절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카나의 한 혼인 잔치에 술이 떨어지자 이를 아들에게 귀띔하여 마침내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예수님의 첫 기적에 관한 묵상 글이었습니다.

‘복된 잔치’인 제 삶에 술이동이 났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안타까워하시며 아들에게 알리고, 제게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이르시는, 그리하여 결국 더 좋은 술로 제 삶이 다시 기쁨으로 차오기를 바라시는 성모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목주기도의 성모님이 제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져서 더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어보지 않아서인지, 저는 어머니처럼 매일 목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영 쉽지 않습니다. 거르는 날도 많고, 5단이 길어 지레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몇 날 며칠이고 간절하게 목주를 굴리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 마음이 목주에 닿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언젠가 목주가 손에 안 잡힌다고 어머니께 털어놓았더니, 그럴 땐 다르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 말씀드려. 속상하다고, 맘이 아프다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걱정도 하느님께 맡기고! 입으로 외우는 기도는 엄마가 하면 되지!”

제게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그 8할이 어머니의 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걸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소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시표권 1.1

김화분 베로니카
수원교구 분당성루카성당

김화분베로니카 쓰고 그리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 요셉의 집 무료급식소 ”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요셉의 집 무료급식소'는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되어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따라 사랑과 나눔으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노숙자들이 하루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 무료급식소는 주 5일간 운영합니다. 하루 평균 1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급식소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시고, 2000년도부터는 안동시의 요청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 40명에게 봉사자들이 직접 식사를 도시락에 담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 인원과 식사 배달 지원 인원을 합하면 하루 평균 150~16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매일(주 5일간) 식사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



는 식사 배달 사업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산동네에 거주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차량으로 하는 식사 배달 봉사가 필수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003년도에 9인승 차량을 안동시의 보조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차량이 많이 낙후되고 고장이 잦아 차량 교체가 시급합니다. 겨울철에는 식사 배달을 위해 산동네를 오르내리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고, 노후한 경유 차량이라 배출가스 과다로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희 요셉의 집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은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지며 넉넉한 양으로 어르신들이 하루 두 끼 정도 나누어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을 위한 주식비와 부식비는 안동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차량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식사 배달 대상자를 17년 된 낙후 차량으로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금으로는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조리사 1명) 등을 충당하기에도 많이 부족하여 후원자 발품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노숙자들을 위해 신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10월3일~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요셉의 집 무료급식소'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인준단체 알림

모임

훈민성소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묵주기도 묵상 피정(서울 마리아 학교)
때: 10월21일(수) 10시~13시(미사 있음) / 회비: 1만원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접수): 010-9620-4820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0월10일(토) 18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지순례 3일
때, 곳: 10월19일~21일·10월30일~11월1일·11월13일~15일·11월23일~25일,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 해설) / 한국성지167만주 순례 모임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협동조합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때, 곳: 10월9일(금)~12일(월), 10월23일(금)~26일(월), 11월13일(금)~16일(월), 11월27일(금)~30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피정지도: 노경덕 신부(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문의: 061)373-3001,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010-3540-9001

수도전통 렉시오디비나(상지피정점)
말씀 안에서 체험되는 깊은 하느님의 만남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10-9401-9374 마리노아 수녀, 02)923-3547

때	11월3일~12월22일 매주(화) 10시~12시30분(8회)	회비: 12만원
	11월5일~12월24일 매주(목) 14시~16시30분(8회)	
	1렉시오기초반 11월20일(금) 16시~22일(일) 15시	회비: 16만원
	2렉시오기초반 12월11일(금) 16시~13일(일) 15시	

교육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12일(월)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복음화학교 141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1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0월12일(월) 10시·10월14일(수) 19시·10월15일(목) 14시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바로로말 이룬 코스 / 문의: 010-7496-1610
강사: 양희진 작가 / 회비: 50만원
때: 10월23일 매주(금) 14시~17시(10주)
곳: 바로로말 혜화나무(주최) / 계좌: 기업은행 005-116491-04-019 (계)천주교성바로로말수도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과정
게임 개발,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모집분야: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oganggame.ac.kr) 입학사이트 참조 / 문의: 02)705-8678, 02)705-8218

가르멜영성문화센터(가르멜 수도회)
문의: 010-4149-1853(carmelcenter.kr)

명사초청 특강	10월30일(금) 13시30분 / 문자 접수
성시간	10월31일(토) 13시30분
문화강좌	숲해설·초공예·서예반 수업 모집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화)	무용지도자과정(장구·노래·무용·레크레이션) 11시~16시
(목)	장구반주 초급 11시·중급 14시·고급 16시30분, 솔리스트 과정 19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10월19일(월)~29일(목) - 전형일 11월14일(토) /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23일(월)~12월3일(목) - 전형일 12월19일(토)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강사: 강세나 (010-779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 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화,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강사: 김경숙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강사: 한상희(010-7244-1312)

미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0월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인내

가톨릭보명성(서울포교베네딕도고척상담센터)
문의(접수): 010-6388-2665 최 막달레나 수녀

제주도 관광
제주안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교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상처받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의 회복: 10월20일~12월22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민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톡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바랍니다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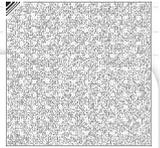
과달루페외방선교회 직원 모집 / 문의: 010-5182-3325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청소·빨래(주5일 근무)

(재)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팀 신규직원 모집
대상: 신입 / 10월9일(금) 24시까지 접수
서류: 홈페이지(www.babo.or.kr) 참조
이메일(hr@babo.or.kr) 접수 / 이메일 문의

영등포동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 문의: 02)2631-8657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15일(목)까지 방문·우편(우 0725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길 9 영등포동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채용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일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올리베라도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5301-131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침묵의 여정

장석훈 지음
기쁜소식 | 320쪽 | 1만6천원
문의: 02)762-1194

저자가 수도 생활을 하며 겪은 많은 것들에 대한 묵상을 시(詩)에 담았다. 수도자로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깨달은 것들, 일상의 고독과 침묵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아픔과 동시에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은총 체험을 독특한 자신만의 시어로 전한다.



신간
문화를 읽어주는 예수

김민수 지음
기쁜소식 | 250쪽 | 1만4천원
문의: 02)762-1194

종교는 이제 뉴노멀에 적응해야 한다. 교회의 사목과 선교도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사목과 선교에 문화적 접목이라는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을 글로 담았다.



신간
**지혜 여정 예언서2
다니엘서 요나서**

박형순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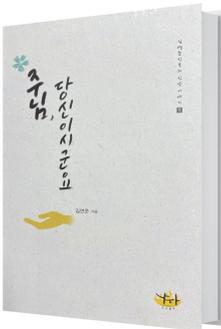
『지혜 여정 예언서2 - 다니엘서 ·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속한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시 문학의 진수를 맛보고 벨과 수산나 이야기의 묘미를 느끼며, 요나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깊고 넓고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한다.



신간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

엠마누엘 멜라르 지음
기쁜소식 | 464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1989년부터 메주고리에 상주하면서 많은 순례객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자가 전 세계 순례자의 체험과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간
주님, 당신이시군요

김연준 지음
도서출판 나다 | 185쪽 | 1만3천원
문의: 010-7581-6771

이 책은 어떤 심오한 신학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일상 안에서 편하게 풀어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을 통해 신자들이 자비의 하느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시회 및 피정
**바오로딸 혜화나무
오픈기념 전시회와
그림피정**

피정: 접수순 20명(방역 수칙으로 인원제한)
장소: 바오로딸 혜화나무 갤러리 / 회비 없음
문의: 010-9759-0882, 02)6367-0800

내면에 있는 자신과 만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박향숙 수녀의 말씀을 담은 그림이야기> 전시회와 그림 피정이 바오로딸 혜화나무에서 열린다. 전시 일정은 10월18일(일)~31일(토) 13시~20시까지이며, 그림 피정은 10월22일(목) 14시~16시에 진행한다.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경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울) 신부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을 보내시면서 개인과 가정의 성화는 물론, 특별히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 2020년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 ☞ 절차 변경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하반기 견진교리는 현장 수업 대신 '비대면 인터넷 견진교리'로 진행합니다.

★ 인터넷 견진교리 수강 방법 ★

1. <http://school.catholic.or.kr/3217e/>에 접속하시면 굿뉴스 회원 가입 후 인터넷 견진교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총 10강의 교리를 수강한 후 문제를 풀고,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 70점 미만일 때는 **재수강 후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3회까지)
4. 수료증을 발급 받으신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본당 사무실로 제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5. 구비서류를 이미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신 분들은 '수료증'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증은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2020년 4월 이후)의 것만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마감 : 10월 11일(주일) 오후 7시 본당 사무실

·접수인원 : 160명 선착순 마감

·견진성사 :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구비서류 :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증 + 아래 서류들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 신자	① 증명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타 본당 교적 신자	기본 구비서류(①~④)	교적 본당
	⑤ 신청자의 교적증명서	
	⑥ 견진의뢰서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군인 주일 2차 현금

연중 제 27 주일이자 제53회 군인 주일인 오늘은 매 미사마다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장병들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10월 병자영성체 없습니다!

◎ 성체현시·강복 : 10월 8일(목) 오후 6시 / 대성전

◎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 기도 모임 취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10월 10일~12월 2일) 기도 모임이 없겠습니다.

◎ 10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신자환영식은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1호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2호	최 마리세레나 수녀

※각 반 50명씩 환영식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각 반 접수 인원이 20인 이하일 경우 합반으로 운영

◎ 2021년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월~2월 ☞ 7월 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중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주일 내방 요망)

·3월~12월 ☞ 10월 23일(금)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추첨!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혼인성사 안내에 게시된 '혼인 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11월 4일(수)부터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4일자 주보를 조기 마감하게 되어 9월 21일 ~ 9월 27일까지의 현금 내역은 10월 11일자 주보에 공지합니다.